

Family TableTalk

Conversation 19

평범한 그릇, 사명받은 고난, 특별한 보배

본문

고린도전서 4:7-10

생각하기

본문에서 바울은 고대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화려한 그릇에 넣어두기 보다는, 도둑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유를 평범한 진흙으로 만든 단지에 넣어두었다. 그들의 그릇에 담겨진 귀중품을 다시 꺼내려면, 그 그릇을 깨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바울이 7절에서 언급하는 보물은,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귀중한 보물을 평범하고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의 백성 안에 담아 두신 이유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 (7절) 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우리가 깨어졌을때, 기쁨과 화합이 우리안에 거하는 영광을 드러내 주는 증거이다. 이것은 마치 깨어진 평범한 그릇이, 예기치 않은 엄청난 가치의 보물들을 드러내 주는 것 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평강과, 만족, 그리고 기쁨을 드러내주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정말 예기치 않은 귀중한 보물이 아닌가! 당신의 삶이 마치 산산이 깨어져 버린 도자기의 한 조각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분명히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 부터 온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롬 8:1).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복음이 퍼져 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성화 역시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씬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앞에 복종하고, 성품의 변화가 있도록 결단하고, 깨어졌을때 가장 잘 볼수 있는 귀중한 보물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적용

-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의 보물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 우리의 고난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왜 쉽게 잊는다고 생각하는가?
- 성경의 어떤 말씀을 암기 하므로, 당신의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상기 하겠는가?

기도

아버지, 당신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때에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신뢰의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 이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보배로운 복음을 이 세상에 보여줄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y Drew Turberville

Drew Turberville is the Student Pastor at Riveroaks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in Germantown, Tennessee. To hear his sermons, visit riveroakspca.org/watch. Follow him on Instagram @riveroakssm.

cpyu.org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

© 2020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